



예장웨신총회

2024년 신년사



총회장 김현수 목사

드립니다.

이제 또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며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그려 봅시다. 교회의 본질을 잃지 말고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확실히

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될 것이기에 가능성을 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새 출발을 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여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뜨겁게 열정을 품고 전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거룩함의 영성으로 충만합니다.

2024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장 웨신총회 총회장 김현수 목사

예장진리총회

2024년 신년사



명예이사장 장한국 목사

나, 기도회 등으로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영성 회복과 신앙생활에 비로소 활기를 띠게 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4년 새해 들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실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왜 뜨겁게 사랑 해야 할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이다. 주님이 미리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하신바 새해는 분명히 주님 오실 날과 세상 끝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허다한 죄를 다 덮고, 모든 계명, 율법을 100% 완수,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찌 사랑 해야 할까? 불평치 말고 대접하라.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

라. 만일 누가 말하게 될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라. 만일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듯 섬기라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에 주님과 같이 섬기고 주님과 같이 우리 몸을 불사르듯 남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무엇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크고 위대해야만 되리라. 마치 요셉이 장자권이 있으므로 부모, 형제를 다 품고 양육하고, 사랑했듯이 말이다. 또 내가 가진 것이 영적으로 부유할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리라. 마치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였던 것같이 말이다. 요컨대, 새해에는 미련 없이, 아낌없이 있는 것을 다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신년사

새해엔 그 보약을 드세요.



사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몇 주 전에 선교지를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 시국으로 4년 만에 열린 현지 사역자 컨퍼런스를 위해 다녀오게 되었다. 오랜만에 열린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역자 컨퍼런스는 뜨겁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교 여정이 육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교회에서 월요일 새벽 4시 30분에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또 자동차로 두 시간

이동해서 항구로 가서 4시간 배를 타고 또 자동차로 두 시간을 이동해서 선교지에 밤 10시에 도착했다. 다시 그 여정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토요일 새벽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의 일기관계로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공항안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된 선교사님이 너무 염려하며 미안해하길래!

"선교사님 그 것도 선교여!" 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며 놀라는 게 아닌가.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그 시간을 보냈었다. 그

런데 그 선교사님과 주위에 가까운 목사님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선교든 어떤 사역이든 또 세상살이든 어찌 좋은 일만 있겠는가? 생각지 못한 수없는 복병들을 만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 또한 인생이고 선교이고 사역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새해가 밝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나도 진심으로 우리 모든 독자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본다. 그러나 매년 년 말이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다사다난"이 아니던

가, 그러니 새해에도 생각지 않은 복병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새해에 더 복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깨달았다 감사가 보약이라는 것을. 나는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감사가 보약이다" 이다.

우리 지저스타임즈 독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감사의 보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보약은 아무리 먹어도 경제적 부담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 보약으로 영육이 풍성하고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보약입니다."

축 2024년 예장진리(대한노회)신년하례 공고

표어 :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벧전 4:8)

총 회 장



대한노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총회장)



All Nations
Seminary for Doctor of the
Bible and the Faith

교육원장 장한국 목사 T.031-424-7612 본 교육원 홈페이지 (www.ANSDBF.com) E-Mail (sdbf@naver.com)

서 기 회의록서기 회 계



김종천 목사 김은임 목사 김정미 목사



신년하례 일시
일시 :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주사랑교회(장한국 목사) 본당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Tel 031)424-7612)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김종천 목사 010-4732-1533

전민족 성경신앙 박사교육원

오직 하나님만 세우신 영성 교육기관의 특징

전민족 성경신앙 박사교육원
원장 장한국 목사

전민족 성경신앙 박사 교육원 (All Nations Seminary for Doctor of the Bible and the Faith) 이 '교육원' 혹은 'SDBF'라 한다)은 오직 하나님만 오를 종말에 전히 세우신 교육 기관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육원장 장한국 목사에게 찾아오셨으니 이는 사2:2-3 말씀입니다.

즉 오늘날 '종말'의 때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 들리라. 많은 사람들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주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올 것임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 세워질 주의 전의 산이 곧 전민족 성경신앙 박사 교육원이라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전민족들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과 또 미래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을 찾게 하는 곳이 이 교육원입니다. 오늘 이 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곳이 곧 이 교육원입니다. 즉 특별한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먼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하기로 뜻을 정하자마자 다른 교회와 주의 종들이 자원하여 설립을 위한 제반 자금을 쾌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이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에 교육원장이 설교할 때에 살짝 운만을 때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서로서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본 교육원을 위한 자금들을 출연하시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토록 순식간에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었고 법인 설립 허가도 나갔고 마침내 설립 감사 예배를 출현한 모든 분들과 함께 모여 2022년 10월 29일에 드리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 교육원의 특징은

① 전 세계 기독교인들로 진리 탐구, 기독교계의 참 지도자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② 오직 영어로만 인터넷 ONLINE 방식으로 교육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③ 오직 성경중심의 강해와 조직적 체계화된 진리 교육을 함으로써 선지자적인 성경관 및 신앙관을 세워 성경 및 신앙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함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④ 궁극적으로는 각국 기독교계의 차세대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학제는 2년제, 4학기로 운영합니다. 1학기 매년 3-6월, 2학기 매년 8-11월로 하되 수시 입학하여 해당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원의 수강 자격은 ①영어 수강이 가능한 수세 기독교인으로서 ②신학교 졸업자 또는 학사이상 졸업자로서 (다만 특별한 경우 법인이사회를 거쳐 교육원장이 인정한 자는 예외 가능함) ③정기 모집일은 매년 2월, 7월 중에 하되 이를 본 교육원 홈페이지(www.ANSDBF.com)에 공지하며 제출 서류는 사진 포함 입학 신청서(소정양식)로 제출해야 됩니다. ④등록금은 매학기 100 USD(\$로 하되 납부 시기는 매년 2월과 7월 중순경에 납부합니다. 기타 안내와 절차 등 문의는 E-Mail (sdbf1@naver.com) 로, 또는 본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

하면 됩니다.

학과목과 교수에 대해서 소개하면 장한국 교육원장 겸 교수로서 Systematic Biblical Theology, 김진환 교수가 The Exposition of The Book of Romans, 장성철 교수가 The Exposition of The Book of Daniel, 강화정 교수가 The Exposition of The Book of John, 박현주 교수가 Dogmatic of New Commandment, 이혜경 교수가 The Exposition of The Book of Peter, 임복임 교수가 The Exposition of Genesis, 장혜령 교수가 General Overview of Revelation, 한송이 교수가 The Pentateuch, 이진기 교수가 The related Theology to the Law among Gospel, 이일규 교수가 The General Overview of the Exodus, 이상 11명의 교수진과 담당과목으로 강의합니다.

이 강의 내용은 일반적인 신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을 대언의 영으로서 시원하고 정확하게 풀어 나가서 더욱 깊고도 넓고, 넓은 영적인 신령한 진리를 드러내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교육원은 그 설립부터 2023년 3월 1일 개강까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특별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2023년 3월 1일 개강에는 66명, 현재 70명이 입학하였습니다. 미국 3명, 캐나다 1명, 대만 1명, 스리랑카 26명, 필리핀 29명, 한국 10명 등 70명이 재학 중입니다. 비록 등록한 학생 수가 6개국에 70명이지만 이는 단기간에 또 홍보도 미흡한 속에서 모집된 실황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민족의 기독교인들이 ONLINE의 사이버 교육 방식으로 연구하는 가장 글로벌하고 편리하며 고(高) 퀄리티의 본 교육원 SDBF로 몰려오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교육원 소속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진리총회(총회장 장한국 목사)이며 또 대한노회 소속 교회와 목사들이 설립, 운영, 교육에 참여하며 또 주요 운영 주체로서는 대한노회에 소속된 주사랑 교회가 주로 사역, 담당하고 있습니다(주사랑교회 담임목사 장한국,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조예교정선교회 청송에 파배기 2,200개 증정

조예교정선교회(대표 유순옥 목사), 23년을 보내며 훈훈한 정을!

대표회장
유순옥 목사

한정된 공간의 자유를 구속받는 청송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곳에서의 오랜 생활은 현실을 망각의

한정된 공간의 자유를 구속받는 청송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곳에서의 오랜 생활은 현실을 망각의

속받는 수용자의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바라며 교도소 직업훈련소 형제들에게 파배기 2,200개를 증정했다.

청송교도소는 조예교정선교회의 사역 지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하고 있다. 청송 직업훈련소는 조예교정선교회 대표 유순옥 목사에게 감사패도 수여하며 감사를 전했다.

당일 23의 마지막 청송 1소의 대집회도 함께하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진리총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함께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증거받는 시간으로 영광을 돌렸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함께한 조예교정선교회 회원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사회복귀의 그 날이 올 때까지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후원으로 수용자들의 마음이 믿음의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 고 했다. 대표 유순옥 목사는 2023년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아끼지 않는 사랑에 감사드리다며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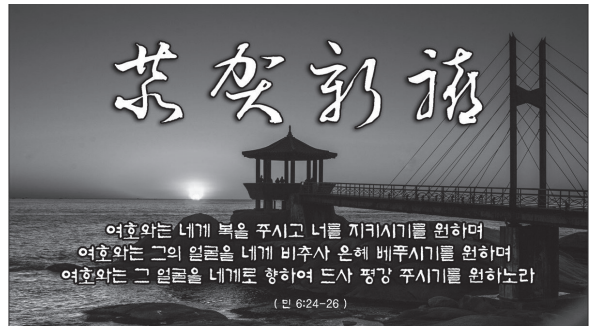
지저스타임즈 류재승 기자

공하신희(恭賀新禧)

복은 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복 받을 것을 해야 하고 받은 복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복사는 성도에게 복이 임하기를 끝없이 기도하지만 받을 그릇과 행동이 없으면 스스로 거부하는 꼴이 된다.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손을 내밀지만 받는 것은 본인이 뚝이

다.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몸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아들의

권세도 얻을 수 없다. 복사는 민수기 6:24-26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그의 얼굴을 비추사



지키시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는 믿음의 행동이 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새해에 복 받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심의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박종서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cpj5037@daum.net / jtntvcpi@naver.com

▶팩스 :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선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 모집 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교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WS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구독자 제위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 위에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본 신문 방송은 구독자님들의 구독료및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가 발행된 지 벌써 19주년을 맞이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 언론사는 후원과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으며, 항상 더 좋은 신문과 방송이 되기를 약속드리며 많은 열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저스타임즈 cjtn tv

이사장 박종서 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농협 : 455030-56-005509

국민 : 455-21-0339-406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 및 문서방송 선교 후원은 반드시 실명으로부터드리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년 구독료 50,000원



지저스타임즈 경기도 부천시 지양로176번길 32호

THE Jesus Times 대운빌라 2층 202호

TEL.032)672-3031(FAX 겸용) H.P 010-5468-6574

E-mail : cpj5037@daum.net jtntvcpi@naver.com

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교 생도수시모집

Westminster Paul Theological Seminary

WPTS총장 : 허형범 목사(Ph.D/Th.D)
Mobile. 010-8604-6075

바울신학교 WPTS는 미국 BETHEL COLLEGE & SEMINARY와 한국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학사 교류 MOU 맺고 또한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는 CHAPEL이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62번길 30, 5층

한국교회총연합회 신년사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2024년



대표회장
장중현 목사

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쟁과 기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아픔에도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시 34:8),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시 84:12)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새해에는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0.7명으로 추락한 합계출산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하여 새해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

는 기도성령운동에 더욱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고, 평화와 도약의 새 시대를 열어가 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겸손과 인내로 세상을 살리는 기도에 힘쓰십시오.

2024년 새해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아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중현 목사

소망교회 리비아 홍수 피해 복구 및 구호활동 위해 7천 7백만원 현금



▲ 가운데 왼쪽 소망교회 당회서기 박경희 장로, 오른쪽 대한적십자사 정책영 부회장

소망교회(담임목사 김경진)는 리비아 대홍수 피해 복구 및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에 7천 7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망교회(담임목사 김경진)는 지난 9월 발생한 대홍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리비아 이재민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7천 7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망교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두 주간 모로코 지진과 리비아 홍수 구호활동을 위한 현금을 모금하여 약 1억 5천만 원

(157,010,080원)을 모금했으며, 이 중 7천 7백만 원을 우선적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리비아 이재민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모금액도 모로코의 구호 활동을 위해 곧 사용될 예정이다. 소망교회는 갈등과 분열로 아파하는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넘어 전 세계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는 도전과 영감을 주고자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망교회가 전달한 성금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리비

아적십자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인버터, 발전기, 식료품, 주방용품, 위생키트, 수제 대용 키트 등)과 더불어 주거, 보건, 물과 위생 등 구호와 복구 활동에 지원될 예정이다.

소망교회 한정은 부목사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성도들의 따스한 마음과 헌신적인 자세에 감동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재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보여준 성도들의 연민과 공감에 감사하며, 소망교회 성도들의 정성이 모로코 및 리비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소망교회는 앞으로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정책영 부회장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심에 감사하며, 소망교회의 성금은 이재민과 재난취약계층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소망교회는 국내외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 계명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첫 주 온라인 주일예배 현금 전액을 당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대구·경북지역에 기부했고, 서울시 종교시설로는 최초로 교회의 수양관을 코로나19 감염 경증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시설로 서울시에 제공했다. 또한,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긴급구호 성금 20만 달러를 전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이민청(移民廳)이 꼭 필요한 것인가?

부족한 인구와 노동인력을 이민으로 채운다고?



대표
이주목 목사

현재 한국은 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인구마저 줄어들어 그야말로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역대 정부들도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3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한국 인구 감소는 중세기 유럽에서의 흑사병 수준'이란 말까지 나돌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다 중소 기업과 농업과 축산업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해마다 20만 명 이상씩을 보충해야 한다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겠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민청(移民廳)을 만들어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와 이민정책을 펼쳐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인 현재 143만 명이나 되고, 그중에 취업한 사람이 92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외국인에 관한 업무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나라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민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더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동화(同化)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결집력을 키울 공산이 큰 국가의 사람들이나 종교는 큰 위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슬람으로 인하여 수십년 간 지속해 오던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였다. 지금도 그들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상존(常存)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민 간 나라에서 1, 2세대는 고분고분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세들이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결국 세월이 가도 그들은 새로운 국가 체제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있음이 반증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발전과 시대적 변화를 위한 이민청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이민을 받아드리고 그들을 위한 법률 체계가 만들어지면, 다시 이를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민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 국가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종교를 가진 세력이나, 국가는 당연히 배제시켜 위험 잠재력을 제거해야 한다.

이민정책이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이는 방법은, 임시 방편적인 것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한 정책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방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안락과 질서, 국가 근간(根幹)을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터 외국인들에게 지방자치 선거에서 투표권도 주었고, 그들에게 온갖 혜택과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등 파격적인 방법을 써왔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그런데도 야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국민들을 당혹케 한다.

그리고 전 정권의 대통령과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외국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인 중국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지경이 되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또 있는가? 자칫하여 한국에 이민자를 많이 보낸 나라의 속국이라도 되겠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속국 개념이나 침략야욕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종교집단은 철저히 걸러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민청 신설이나 새로운 이민정책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실하게 동화될 사람들로 엄선되어야 한다. 절대로 나라가 망할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업의 전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은 다각도, 진취적으로 하되, 실제적인 것은 철저한 분석과 세계적인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해야 한다.

2024년 새해 모두 일어납시다!



발행인
정기남 목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 보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계획을 세우고 두 팔과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2024년 새해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그리고 출발합시다.

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두운 곳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사 60:1에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새 힘을 얻었으므로 새 초부터 새 말까지 새로운 세계를 향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사역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실이 없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기쁨 없는 등잔이나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잠 14:25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우리는 일

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이루지 못한 교회의 부흥이 회복되는 새해,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엡 5:9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지저스타임즈, cjtn tv를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출발로 일어나야 합니다. 한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시는 교회가 복을 받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 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4년 한해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복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2024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주제 : 상 받는 총회(고전 9:24~27)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총 회 장

이 규 필 목사
동천교회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서 기

서재식 목사
풍성교회

부 서 기

전종록 목사
언약교회

회의록서기

김주현 목사
발라델비아교회

부회록서기

배영자 목사
금촌시온교회

회 계

송인선 장로
양문교회

부 회 계

강대선 장로
평안교회

총 무

박용순 목사
화북교회

신년하례 일시

일시 : 2024년 1월 8일(월) 오전 11시

장소 :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시무)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94

안내 : H.P 010-7474-3173/010-6256-3173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 연합전교회

이사장 : 이 규 필 목사

총회: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 전화:(02)496-0191 / 0181(FAX 겸용)

靑松 건강칼럼(915)... Cholesterol Day

구글 레시피 검색 전 세계 1위 비빔밥 이야기



靑松 박명윤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지저스타임즈 논설위원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창립 25주년을 맞은 구글(Google)이 지난 12월 11일 ‘올해의 검색어’를 발표했다.

올해 전 세계인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레시피(recipe, 음식 조리법)는 우리나라 ‘비빔밥(Bibimbap)’이었다.

이는 한식(韓食)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증명한 것이다. 비빔밥의 뒤를 이어 스페인 꼬치 요리인 에스페토(Espeto), 인도네시아 죽요리 파페다(Papeda) 등이 순위에 올랐다.

비빔밥이 구글 레시피 검색량 1위에 오른 건 한국 드라마 등 K 콘텐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구글에 힌디어로 ‘비빔밥’을 검색하면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비빔밥 조리법과 같은 게시글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한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 글로벌 검색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비빔밥이 세계에 알려진 계기는 1997년 대한항공(KAL)이 기내식(機內食)으로 비빔밥을 제공하면서부터라고 본다. 웰빙(well-being) 기내식으로

주목받아 1998년 ‘세계최고 기내식 상(賞)’을 받았다. 요즘도 대한항공 국제선에서 연간 300만개 이상 비빔밥이 소모된다. ‘땀 황제’ 마이클 잭슨이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처음 맛보곤 ‘비빔밥 마니아(mania)’가 됐으며, 그가 머물던 신라호텔에선 비빔밥만 찾은 그를 위해 고추장과 육류가 안 들어간 ‘마이클 잭슨 비빔밥’ 레시피를 개발했다.

비빔밥은 같은 ‘밥’ 문화권인 일본과 중국에는 없는 독특한 음식이다. 비빔밥은 식약동원(食藥同源) 즉, ‘음식과 약은 뿌리가 같다’는 한국 음식 철학이 담긴 균형식(均衡食)이다. 다양한 식품을 제공하는 비빔밥은 식재료 배합에 따라 저열량 ‘다이어트식(食)’이 될 수도 있다. 비빔밥은 궁궐에서 임금으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두루 먹는 우리 민족의 대표음식이다.

필자는 비빔밥을 즐겨 먹는다.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에서 1965년부터 25년간 근무하면서 보건(health)과 영양(nutrition) 관련 국제회의에 많이 참석했다.

국제회의에서 만난 외국인들에게 웰빙(well-being)한식으로 비빔밥을 소개하곤 했으며, 친분이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식당에서 비빔밥을 대접하곤 했다. 외국인들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 3대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는 비빔밥을 고추장·참기름을 넣고 적절 비벼서 먹는 이색 체험을 좋아한다.

비빔밥의 대표작이 레시피는 흰 쌀밥에 각종 나물을 넣고 참기름과 고추장을 넣고 비빈다.

대표적으로 고추장을 넣지만, 간장이나 된장, 참장을 넣어서 비비기도 한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음(陰)과 양(陽)의 오방색(五方色)을 사용한다. 우주를 구성하는 흰색, 노

란색,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의 다섯 가지 색이 모두 이상적이라는 예기다. 즉 탄수화물은 흰색, 단백질은 빨간색, 지방은 노란색, 채소는 파란색, 발효 식품은 검은색이다.

우리 나라 밥 요리인 비빔밥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다. 부빔밥, 제삿밥, 골동반(骨董飯), 교반(攪飯)으로도 부르며, 궁중에서는 비빔이라 불렀다.

음식을 담은 그릇이 많이 없는 집 밖에서 산신제나 동신제를 지낼 때 신인 공식(神人共食)이라는 생각에 따라 그릇 하나에 이것저것 받아 섞어 먹던 것, 또는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빼집없이 음복(飲福)하기 위해 밥에 여러 가지 제찬(祭饌)을 고루 섞어 비벼 먹던 것에서 발달하였을 수 있다.

비빔밥은 조선 중기의 문신 박지해(1569-1635)가 지은 역사서 ‘기재잡기’에 혼돈반(混沌飯)으로, 조선 후기의 문신 권상일(1679-1760)이 쓴 일기인 ‘청대일기’에 골동반(骨董飯)으로 언급된다. 실학자 이익(1681-1764)이 지은 ‘성호전집’에는 골동(骨董)으로, 실학자 이덕무(1741-1793)의 ‘청장관전서’에는 골동반(骨董飯)으로 언급된다.

골동반의 ‘골’은 섞을 골, ‘동’은 간직한 동으로 ‘골동’이란 여러 가지 물건을 한데 섞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골동반은 이미 지어 놓은 밥에다 여러 가지 찬을 섞어서 한데 비빈 것을 의미한다.

이규경(1788-1856)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채소비빔밥, 잡비빔밥, 회비빔밥, 정어비빔밥, 대하비빔밥, 새우겉갈비빔밥, 새우알비빔밥, 계장비빔밥, 달래비빔밥, 생오이비빔밥, 김가루비빔밥, 고추장비빔밥, 왕후비빔밥 등 여러 가지 비빔밥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면서 “평양의 감홍로, 냉면, 골동반”을 들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의 조리서인 ‘시의전서’에는 비빔밥의 조리법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밥을 정히 짓고, 고기는 재워 볶고 간납(肝納)은 부쳐 쥌다. 각색 남새를 볶아 넣고 좋은 다시마로 튀각을 튀겨서 부쉬 놓는다. 밥에 모든 재료를 다 섞고 깨소금과 기름을 많이 넣어 비벼서 그릇에 담는다.

위에는 잡탕거리처럼 계란을 부쳐서 골짜짜 만금씩 찢어 었는다. 완자는 고기를 곱게 다져 잘 재워 구슬만금씩 빚은 다음 밀가루를 약간 묻혀 계란 섞워 부쳐 었는다. 비빔밥 상에 장국은 잡탕국으로 해서 쓴다.”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비빔밥이 있는데, 특히 ‘전주비빔밥’과 ‘진주비빔밥’이 유명하다. 비빔밥을 ‘햇제삿밥’이라고도 한다. 대구 햇제삿밥도 유명했

나 지금은 사라지고, 안동의 햇제삿밥만이 남았다. 실제 제사가 아니라 제사상에 주로 올리는 음식들을 요리하여, 제사가 아닌 평상시에 비벼 먹는 비빔밥을 의미한다.

실제 제사(祭祀)를 올린 음식으로 비빔밥을 해 먹을 때에는 ‘제삿밥’으로 지칭한다. 고추장 대신 간장으로 맛을 낸다.

〈전주비빔밥〉은 재료 중에 콩나물이 중요하다. 콩나물은 입실에서 나는 서목태(鼠目太, 쥐눈이콩)와 좋은 물로 길러서 오래 삶아도 질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밥을 지을 때 쇠머리 고운 물로 짓고 뜸들일 때에 콩나물을 넣는다. 육수에 밥을 짓고 쇠고기, 콩나물, 시금치, 죽간, 고사리, 도라지, 미나리, 표고버섯 등을 얹어 고추장에 비벼먹는다. 육회가 올려 지기도 한다. 달걀노른자는 생으로 올라간다. 콩나물국과 함께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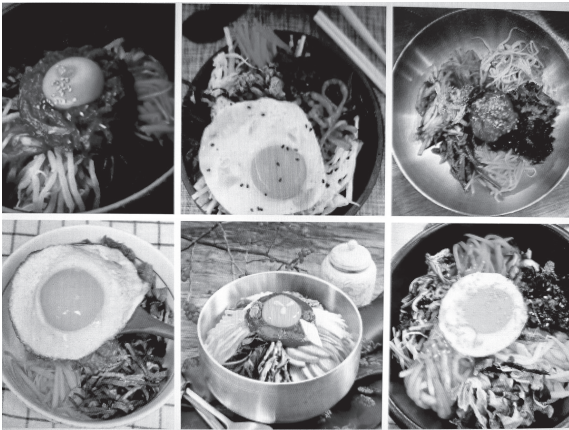
전주비빔밥의 주재료인 콩나물은 일제 강점기부터 전주가 가장 유명했다. 전주사람들이 콩나물을 즐기게 된 것은 19세기 말 풍토병을 막기 위해 콩나물을 상식했다고 한다.

소금으로만 간을 한 콩나물국을 술(탁주)과 함께 마시는 전주명물 ‘탁백이국’이 1929년에 언급된 것을 보면 콩나물은 전주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음식 재료였다. 전주는 콩나물과 황포묵을 길러낸 물맛이 좋고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풍성하게 나는 산지이다.

〈전주비빔밥〉은 경상남도 진주 지방의 비빔밥으로 늦그릇에 흰밥과 다섯 가지 나물을 담은 후 고추장을 얹는 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화반(花飯)이라고 불린다. 고추장에 다진 소고기를 넣어 볶은 소고기 고추장(약고추장)을 쓴다. 일반적인 비빔밥처럼 콩나물 대신 숙주나물을 쓰며, 해초나물과 해물보양국 한 국자 넣고, 그 위에 소고기 육회를 듬뿍 얹어 낸다. 곁들여 먹는 국물은 선짓국을 쓴다. ‘평양비빔밥’은 전주비빔밥과 유사하지만 육회대신 볶은 소고기를 사용한다.

비빔밥은 한 가지 음식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동시에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

비빔밥 한 그릇(450g)에 함유된 영양성분은 칼로리 691.6kcal, 탄수화물 98.7g, 단백질 24.6g, 지방 22g, 당류 18.3g, 나트륨 1119.6mg, 콜레스테롤 95.4mg, 포화지방산 3.9g, 트랜스지방 0.1g 등이다. 한국인 성인(19~49세)1일 에너지 권장량은 남성은 2500~2600kcal, 여성은 1900~2000kcal이다.



비빔밥에 얹어 먹는 쇠고기볶음이나, 육회, 해산물, 달걀 등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며, 밥을 비빔 때 들어가는 참기름이나 각각의 재료를 조리하는데 쓰는 기름에서 지방을 보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나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성인병과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재료에 들어있는 폴리페놀(polyphenol)이나 플라보노이드(flavonoid)와 같은 물질이 면역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추장에 들어있는 캡사이신(capsaicin)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구글에서 발표한 ‘올해의 검색어’에서 비빔밥이 레시피 부문 1위에 오른 것은 세계인들이 비빔밥으로 대표되는 한국 음식을 알고 싶어 한다는 증거다. 영국 유명 출판사 파이돈(Phaidon)이 지난 10월 펴낸 ‘코리아 쿡북(The Korean Cookbook)’은 세계적으로 고조된 한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요리책이다. 코리아 쿡북은 한국인 밥상에 오르는 음식을 총망라했다.

요리책 분야에서 으뜸인 파이돈의 첫 한식 요리책의 공동저자는 20여 년간 알고 지낸 선후배 요리사인 박정현씨와 최정윤씨다.

미국 뉴욕에서 레스토랑 4개를 운영하고 있는 박 세프는 현재 세계 미식계에서 주목받은 인물로 꼽힌다. 그가 2018년에 문을 연 모던 한식 레스토랑 ‘아도믹스’는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 2개를 받았고, 올해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50’에서 8위에 올랐다.

최 세프는 국내외 유명 호텔과 스페인 요리과학연구소 ‘알리시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생표 ‘우리맛연구조합’에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해왔다. 두 저자는 “한식이 골든타임(golden time)을 맞았다”며 “이 기회에 프랑스, 일본 음식처럼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서는 데 기여하는 마음으로 요리책 ‘코리아 쿡북’을 썼다”고 말했다.

‘한국식 밥상’을 처음 받은 외국인들은 너무나 많은 반찬에 놀란다. 무엇보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혼란에 빠져 당황한다.

한식의 매력은 같은 밥상에 함께 앉더라도 사람마다 어떤 순서와 조합으로

칼럼

아무리 두드려도!!

이상중 목사

상임회장
새움교회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 주지 않으니 소통이 안 됩니다. 단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내 것을 지키고 나누려는 마음이 없으니 스스로 소외되어 갑니다. 문을 열면 밖의 세상도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 가며 함께하기를 기다립니다. 밖에 누구요~ 주인의 정감어린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반찬을 먹느냐에 따라 식사 경험이 차별화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삼겹살과 먹는 김치와 쌀밥과 먹는 김치는 맛과 식감이 다르게 느껴진다.

양식(洋食)은 요리사가 원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주어진다. 한식(韓食)은 먹는 사람의 입안에서 완전해진다. 취향대로 맛의 조합을 창조해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게 한국 밥상이다.

즉 요리사가 아닌 먹는 사람이 자기만의 코스를 만들어 먹는다. 이에 한식의 매력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한국 밥상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뿐 아니라 먹는 법도 소개해야 한다.

뉴욕타임즈(NYT)는 최근 ‘한국 레스토랑이 뉴욕의 파인다이닝(고급 외식)을 재창조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한 면 전체에 실었다.

신문은 “한국 셰프들이 뉴욕 고급 레스토랑을 석권하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프랑스요리의 패권을 끝냈다”고 적었다. 한식은 세계 미식을 선도하는 첨단 트렌드로 미국에 안착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미쉐린 가이드 뉴욕’에서 별을 받은 식당 72곳 중 9곳이 한식당이며, 프랑스 식당은 7곳이었다.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비빔밥의 산업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외 인지도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비빔밥의 해외 인지도 제고에 따른 국가이미지 상승 및 비빔밥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한류관광객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빠르고 신속한 우수 기업 선정 한국의전협동조합

필요시 선택 사항



도우미 1인 10만원

남 상복 1set 6만원

여 상복 1set 2만원

시설의 발생비용 [별도비용]

01
단순 장례식

120 만원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화장시 : 목함 매장시 : 횡대

02
3일장 기본 장례

190 만원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영좌설치 : 빈소용품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화장시 : 황토봉인함 매장시 - 횡대

03
3일장 고급 장식

230 만원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영좌설치 : 빈소요용품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고급리무진 and 황초봉인함 매장시-횡대

제단 장식

영정제단장식 빈소와 환경에 따라 선택

전문 도우미

장례일정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

남 상복

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종교, 가족환경에 따라 선택

여 상복

종교, 가족 환경에 따라 선택

1644-2542/010-3788-1130

한경총, 2024년도 경목, 교경 신년사



총회장
홍향표 목사
올해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소중한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글을 나누게 되어 영광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현재의 도전에 대처하며,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도전들을 극복하고, 함께 더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024년은 우리가 함께 동경하는 미래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

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선교와 교육과 문화, 예술을 통해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는 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는 모두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망이 모여, 2024년은 미래를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국민, 경찰직원, 경찰목사, 교회와 경찰 후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행복한 순간들을 나누며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홍향표 목사 배(拜)

사)에장청교도(총회) 서울중앙노회 목사임직예배

신임목사는 박종숙 목사, 송명희 목사, 이진 목사!



▲ 노회장 이상수 목사 ▲ 정봉구 증경총회장 ▲ 총장 홍향표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청교도 총회 서울중앙노회(노회장 이상수 목사)는 지난 12월 4일(토)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나길 3층 총회신학교 본원 강단에서 박종숙, 송명희, 이진 등이 목사로 임직식을 가졌다. 청교도 성도의 신앙생활의 이념은 1. 성경대로 깨닫고, 2. 성경대로 행하고, 3. 성경대로 전파하자는 데 있으며, 성경의 진리를 따라 바른 신학을 정립시키며,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조성, 청교도적인 삶을 지향하며, 기독교 진리 사역에 앞장서서 필요한 교육, 봉사, 강화를 시행하여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생명을 받아 복음 전도활동에 주력하여 주님의 분부의 명령을 순행하는데 목적을 둔다. 고 했다. 이러한 청교도 정신의 참 교육을 받은

임직자들은 비록 적은 교단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여 노회와 교회에서의 사역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목사 임직에 임했다고 말한다. 이날 송명희 목사의 예배 인도로 시작되어 김지훈 목사(홍은제일교회)가 대표 기도를 드렸으며, 인도자 송명희 목사가 임전 6:11~16절을 봉독하고, 목사 임직자 일동과 본원 잠실 분교장 박용숙 목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뜨겁게 영광을 돌려 드렸다. 노회장 이상수 목사 말씀선포 노회장 이상수 목사는 "주님의 명령"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노회장은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목사가 해야 할 일,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일, 이

를 모른다면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살아온 사람은 합격,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합격자로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진다고 했다. (생략된 노회장의 설교는 본방송 cpj tv(http://cpj.kr)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이기에 재전송...) 이어 노회장 이상수 목사는 임직자들과의 서약식 문답을 갖고 목사안수를 거행한 후 악수례와 착의식을 거쳐, 이상수 노회장은 임직자의 이름을 호명하고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박종숙, 송명희, 이진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청교도 총회 서울노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했다. 이 노회장은 또한 안수증서 및 안수패를 수여했다. 임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편 이날 안수 위원은 증경총회장 정봉구 목사, 증경노회장 윤종곤 목사, 총회신학교 총장 홍향표 목사, 노회장 이상수 목사, 김지훈 목사(홍은제일교회) 등이다. 청교도신학교 총장 홍향표 목사 축사를... 총회신학교 총장 홍향표 목사의 축사에 이어 증경 총회장 정봉기 목사 부부에게 지난 40년간 총회발전과 후학도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신 공로가 큼으로 공로패를 증정했다. 격려사에 김지훈 목사, 증경노회장 윤종곤 목사는 권면을, 증경총회장 정봉기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꽃다발 증정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정봉구 증경총회장은 청교도의 정체성을 갖고 신학교를 설립했다. 이날 증경 총회장 정봉기 목사는 cpj

tv와의 인터뷰에서 청교도 총회가 설립된 과정과 신학교 세워지기까지의 지난 역사와 앞으로의 발전사에 대해 말하면서 청교도 정신을 굳게 갖는다는 교단 정체성을 밝혔다. 최초 청교도 총회가 설립된 것은 미국에 있는 3인의 교수를 초빙하여 한국에서 세미나를 가졌으며, 한국에서도 교수 정봉기 목사를 비롯 일행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미나를 가졌다. 당시 정봉기 목사는 교향교수로 추대되어 미국에서 5년간 교수로 사역해 왔다. 그 후 여러 목회자들과 교수가 뜻을 같이하여 한국에 청교도 총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총회가 후 학도를 위한 교육이 시급함을 느끼고 정식대학은 아니지만 대안에서 또는 서울에서 청교도의 정체성을 갖고 총회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증경 총회장 정봉기의 교단과 신학의 발전사에 대해 본방송 cpj tv(http://cpj.kr) 시청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많은 구독바란다. 또한 증경 총회장 정봉기 목사는 목사임직에 앞서 서울 중앙노회 결성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예 서울 중앙노회장 이상수 목사, 성경(행 1:1-9월)을 봉독하고, 정봉기 증경 총회장은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증경 노회장 윤종곤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이날 노회를 개회하고 신임 노회장에 이상수 목사를 추대하고 박수로 만장일치 노회장에 선출되었다. 서울 중앙노회는 이날 노회의 운영 건, 신학교 운영 건, 기타 미진 안건 등을 다루고 목사고시를 진행한 가운데, 마쳤으며, 목사 고시위원은 정봉기 목사, 이상수 목사, 송명희 목사 등이다. ▲ 임직패를 받은 임직자들

꾸미오리 김창숙 목사 전통무용대회 은상 수상



꾸미오리 김창숙 목사는 지난달 서울 관악구 전통무용협회가 주관하는 전통무용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꾸미오리 김창숙 목사는 지저스타임즈 예술극장을 맡고 있으며 상임이사로 방송선교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 한편 꾸미오리 김창숙 목사는 세계로신학학술원, 꾸미오리 기독교무신학원 원장으로서 경기도 양주시 교암동에서 기독교무신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명인이기도 하다.



파종진 목사 2023년도 12월 국내외집회일정

○ 단국대학교 총동창회 자문위원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대표교문
○ 서울대학교(ABK)제12기 원우회교문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5(금) 오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Meeting Ceremony (준비위원장 Jasom Park) 010-2238-4592
16(토) 오전 Business Blessing Event
16(토) 오후 World Gospel Mission Association
17(토)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18(월)~19(화) 필리핀(Philippines) Calamansi Bethel 찬양교회(하을철 선교사)
20(수)~21(목) 필리핀(Philippines) Calamansi 지역 한주민전도성회(준비위원장 하을철 선교사)
22(금) 미국

22(금)~23(토) 전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6352-0691
24(주) 오후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010-8222-1992
25(월) 성탄절 Important Charity
26(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9667-5321
27(수) 오전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주최: World 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 정진희 목사)
28(목) 오전 울음힐링선교회(홍재 이운을 목사) 010-8947-2011
29(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31(주) 자정 남서울중앙교회(원로 파종진 목사, 담임 여찬근 목사) 02-3411-9191
영주종신목회대인주기도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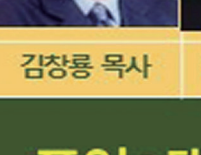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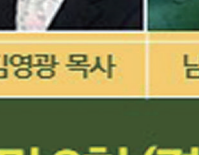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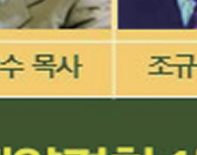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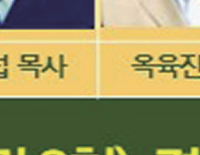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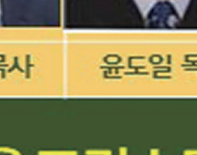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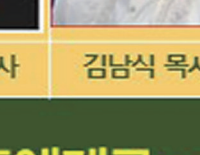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www.na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2024년 근하신년 경찰청.한국경목총회 임원일동																																	
총 회 장		명예총회장		직전총회장		28대 증경회장		30대 총회회장		31-32대 총회회장		36대 총회회장		37대 총회회장		39대 총회회장		41대 총회회장		고 문		수석 부회장		언론 대표									
																																	
홍향표 목사		김중순 목사		이상식 목사		조중욱 목사		염신형 목사		허식 목사		이상재 목사		김진수 목사		최현기 목사		박중식 목사		권대원 목사		전남호 목사		정기남 목사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홍향표 목사		김중순 목사		이상식 목사		조중욱 목사		염신형 목사		허식 목사		이상재 목사		김진수 목사		최현기 목사		박중식 목사		권대원 목사		전남호 목사		정기남 목사									
특수이사		행정국장		임 원		임 원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배경성 위원		김성준 위원		양미상 목사		정운선 목사		김창룡 목사		성상모 목사		김영광 목사		남기덕 목사		김길수 목사		조규섭 목사		육육진 목사		전대구 목사		윤도일 목사									
김남식 목사																																	
표어: 대한민국 14만3천(경찰 13만 해양경찰 1만3천) 경찰과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의료대표		선교대표		홍보국장		사무국장		협동총무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박용준 목사		이광재 목사		정지환 목사		임용환 목사		박용숙 목사		유기동 목사		홍문진 위원		방경민 목사		김진자 목사		서희석 목사		김경만 목사		왕대석 목사		이상관 위원		양현욱 위원		이경태 위원		장철재 위원		김용우 위원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후원 이사	
																																	
이기범 위원		임아석 위원		허종우 위원		이창희 위원		김영모 위원		조희찬 위원		정윤준 위원		윤정원 위원		박순임 위원		이수락 위원		이상만 위원		장기준 위원		이상일 위원		유명현 위원		김진섭 위원					
																																	

▶게시특 15장 강해(78)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지난번에 이어서)

6.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랍고,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시나이다

‘주의 행하신 일’과 ‘주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행하신 일’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아버지께서 영안으로 보여주신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위대한 일(계20:4-6)입니다.

‘주의 길’은 주님이 이끌어주신 길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신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의 종착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이끌어주신 길로 믿음으로 이끌림 받아 신앙생활 하게 하시면서 종국에는 영광의 보좌 우편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너무나도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길이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앉은 자리에 함께 앉게 하며 주님이 받은 영광을 함께 받는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내 의(義)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의(義)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의롭다고 한 것이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라고 하더라.

7.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이것은 주님을 무시워하여 공포 속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크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령교회 담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주의 이름으로 믿게 하였으며 성령을 받은 것도 주의 이름으로 받게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증거도 하게 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순교의 제물의 신앙으로 세우셨고, 주의 이름으로 환란도 이기게 하시고 순교도 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 주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고,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있는 나’를 보실 때, 나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속만 썩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있는 슬리한 나)를 이렇게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니 이것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단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강박하여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양식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정하여 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반석을 쳐서 모세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하였기에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9.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의 모든 민족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똑같은 말씀으로 낳은 바 된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은 혈통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민족에게 혈통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민족은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진리로 낳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실 주님께 경배하는 민족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며 이들은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되었고, 양육된 자들이며 결국 그 진리의 말씀으로 순교하여 첫째 부활에 영광에 이르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모든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주님의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우리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10. 또 이후에 내가 보니

앞서 깨닫은 바와 같이 1절에서 4절에서의 일들이 일어난 이후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4절에서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민족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앞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유리 바다 위에 있는 자들, 바로 순교한 자들이 ‘모든 민족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민족들’은 우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믿으십니까?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까요? 여기서의 ‘주의 심판’은 바로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으로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들은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의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절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며 결국 순교로써 이기게 되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서 있는 ‘모든 민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후에 내가 보니’는 바로 이런 일들 이후에 나타나는 일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계 20:4-6]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자들은 집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도 않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주님 재림 시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이며 이곳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있으며 이후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후거나 공중의 예비처인 어느 별과 같이 잘못된 것으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비처도 아니고, 공중의 예비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後) 삼년 반’의 일로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모습이며 여기에 우리들이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후에 ‘하늘의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며 이를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모두 예수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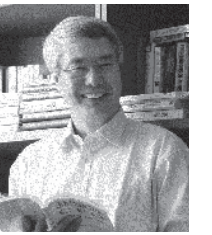
그러므로 여기서 ‘증거의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이 되고, ‘증거’가 되며 ‘언약’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성경으로 본 건강학<41>

가을은 건강비축의 계절

황성주 박사
(사랑의콜러너)



가을철에는 사람들이 유난히 보약을 많이 찾는다. 여름 더위에 지친 체력을 회복하고 겨울 추위에 대비한 ‘보호본능’에서 다들 몸의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나 규칙적인 생활, 영양의 조화, 적절한 운동 등 건강한 생활양식을 견지한다면 굳이 보약이나 몸보신을 따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가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 풍년의 계절이기 때문이다.오리려 건강을 위한 절호의 찬스인 가을을 ‘먹고 마시고 노는’ 계절로 잘못 인식하여 타락성이 농후한 소모적인 생활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외적 조건이 완벽하더라도 스스로 무너지는 데야 할 말이 없다.건강을 공간에 모아둘 수 있는 기회를 틈틈이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비축은커녕 그때그때 건강을 탕진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고서 몸보신을 모두한대서야 보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최근 한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가.

그 친구의 병원에 한 유명인사가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은 불행하게도 말기 암환자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환자 같지 않은 인상을 풍겼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있었다고 한다. 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으며 의아해하는 그 분에게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았다.그 분은 매일 음주를 즐겼고 그것도 폭음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많은 보약을 상용했다고 한다. 그 분의 경우 폭음과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 몸은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가는데 보약의 심리적 효과 때문에 잠시 위장되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른 바 ‘마스크 효과’의 전형적이 실례라 할 수 있다.오늘 날 현대인의 의식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불건강’의 씨앗을 끈임없이 심으면서 ‘건강’의 수확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요행이나 도박으로 될 수 없는 일이다.‘합리성’을 신조로 삼는 현대인의 건강의 측면에서만 유독 ‘상식 밖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건강의 법칙에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몸을 마음대로 방치하면서 약을 먹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비단 가을은 몸의 건강만을 추구하는 계절이 아니다. 공간에 채워야 할 건강은 정신적·영적 영역에도 마찬가지다. 쾌적한 독서의 계절에 그동안 미뤄왔던 양서를 읽는 일과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도전해보라. 또한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

진지한 성경 연구와 깊은 기도와 명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마음껏 누리되라. 가족등반 등 대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여름 내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탄핵하라.우리의 가을은 길지 않다. 가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황금같은 시간을 아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영양가 있는 양식을 마음껏 섭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리라.건강 자체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건강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소모적인 일을 위해서가 아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대비해서 건강을 비축해야 한다.무조건 된다고 일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서는 사람’을 쓰시 않고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과 지혜와 인격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담임 이규필 목사
(홍익대학 이사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 안 내

예배 오전 9시 1부
오전 1시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새벽예배 : 오전 5시

담임 전예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철야 오후 8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능곡로 36(3/3) 3동 101호(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합동보수증경총회장)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충시흥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뚝대야 2길 5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고성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觀務牧師 서명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매주 금 오후 03:00, 08:00

담임 마순덕 목사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전길 24
☎061) 281-1671 010-4630-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담임 장한국 목사
(전주총회장)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철야 오후 8:00

담임 김관호 목사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79
H. 010-7788-0091 T.032-612-0190

| 예수님 재림의 때[1] |

天地는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 이어서)
막 13:28-37

28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야나니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때가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3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31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 너희는 주의 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34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 일든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6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니라.

본문 2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야나니,’하셨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 말씀의 비유를 배우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알 수 없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고,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야나니, 하셨다.

두 번째는 여름을 알아야 한다. 29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때가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우리 예수님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때가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이다.

또한 30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주님 재림의 때’를 알아야 한다. 주님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임을 알아야 한다. 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본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먼저 여름이 가까워진다고 했다. 성경에 여름은 농부가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도리깨를 들고 내리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때이다. 여기서 여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도리깨를 들고 내리치는데 이때 알곡은 남아있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간다. 이해를 돕는다면 알곡과 쭉정이는 성도를 가리킨다. 여기서 큰 환란이란 도리깨로 말미암아 참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이에 대해서 가려지게 된다. 이때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큰 환란이란 도리깨에 맞아가면서 쏟아지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어간다. 곡간은 천국을 가리키고, 쭉정이는 큰 환란이란 도리깨에 못 견디고 바람에 날려가고 만다. 그렇지만 모진 고통과 큰 환란이 와도 이를 잘 견뎌낸 알곡은 곡식 창고로 들어간다. 즉 신앙생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자들은 엄청난 축복이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장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큰 환란의 도리깨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알곡의 자리에서 실격된 쭉정인데 이들은 망하는 날이다. 우리 예수님은 3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셨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가 잘된 자들은 큰 축복의 날이 될 것이며,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이 되는 것이다. 즉 알곡이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다. 이날은 깨어 있는 자들만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열리는 날이다. 아멘.

36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 죄의 쓴 뿌리가 남아 있다면 제거하라! -

지난호에 이어서

40. 아직은 죄의 쓴 뿌리가 남아 있다고 믿습니까?(2)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 : 5~7).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을 믿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롬 8 : 10).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 : 16,17).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과거에 마귀에게 종 노릇하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지나갔음을 믿습니까?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죄(원수마귀)에게 종 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 : 6).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롬 6 : 17~18).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 여러분은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

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에게 가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롬 7 : 4).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죄의 쓴 뿌리가 아직도 여러분 마음 안에, 또는 몸 안에 있다는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굳이 죄의 쓴 뿌리가 남아 있다는 부정적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겠습니까? 죄(원수마귀)의 나무에 붙어 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임 되지 않았습니까? 죄(원수마귀)의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그 나무(죄의 쓴 뿌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이 죄의 쓴 뿌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 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롬 11 : 17). 형편과 처지를 보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정적인 말들은 다 부인하면서 죄의 쓴 뿌리가 남았다는 거짓말은 잘못 용납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틈타어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믿고, 현재의 고통을 부인하며 믿음을 내보여 치료를 받으면서 (물론 믿었다가도 형편과 처지를 보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왜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십니까? 언제까지 죄의 쓴 뿌리가 남아 있다는 부정적인 고백을 하실 겁니까? 죄의 쓴 뿌리가 다 뽑힐 때까지요? 믿을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죄의 쓴 뿌리도 뽑아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행할 때만이 죄의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이 뽑힐 것입니다.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제발 죄의 쓴 뿌리가 뽑힐 줄로 믿지 마시고 뽑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쓴 뿌리가 진짜 뽑혔으면 왜 또다시 나오니까? 안 뽑혔으니까 나오지!” 이렇게 제게 묻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죄의 쓴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성 깊숙이 있는 죄의

쓴 뿌리, 왕 뿌리라고요? 아니면 원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이 모든 죄를 씻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도, 성령을 받을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나오는 죄의 쓴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범죄케 하려고 종용하고 지배하는 능력인 죄요 원수마귀요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요 원수마귀요 사탄에게 종 노릇하던 옛사람을 죽이신 것이 죄와 원수마귀와 사탄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경각을 위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심으로써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고 우리는 다만 온전한 성결을 향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 영을 이루었다 해도 결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령님을 의뢰하여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원 수마귀), 곧 사탄에게 어떠한 시험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육체는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우리는 씹어질 몸을 가진 이상, 온 영 이셨던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기에 원수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온 영을 이루었다 해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령이었던 화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간 것을 거울삼아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쏘씨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롬 6 : 12).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 : 16,17).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2,13).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목사 **황덕광**

새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저녁 7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9길 61
02)324-4680-323-9106, FAX 02)325-9091

『합동보수신학학술원』



성경신학, 실천신학 중심의 실전문 교육
대학/2년 8학기 대학원/1년 6개월 6학기
(주.아, 사이버(월.화.수.목.금.토)/수시모집
연구원/리더십 과정, 학술원/교수양성
설교전문대학(단기 12주/정규 1년/전문 2년)
서울분원/서울금천구시흥대로97(유희1동 216호)
부산분교/부산 수영구 광서로14-1
분교(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청주, 전주, 울산, 장

총장 : 차요한 목사(Ph.D) HP:010-5341-123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목사 **최정수**
부목사 **이성현**

일상교회(日常敎會)

예배안내

본 예배 주일 11시 주일 오후 주일 14시
수요 예배 19:30 새벽 예배 매일 06시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13시
청년 예배 주일 10시
직장 예배 매일 8시30분 에이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59번길 10. 3층
Tel:031-216-2089 / 010-2252-3352

행복의집,(시온노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동훈복지재단



대표이사 **곽동훈**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편정·1급~3급차 환병)

강원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411. (법인사무국)
T. 033-576-0202(070-8986-1009, 070-8986-1004) M. 010-7580-1004
F. 033-576-0236(0504-091-4234) E. dhwf1004@naver.com

열두광주리 기도원



김명호 목사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교북로 43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혜진** 목사

벧엘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한국기독교
장로회



담임 **홍성철** 목사

평안하고든든한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 1부예배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주일오후 : 저녁 8: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요성가기도회 저녁 :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40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51 ☎ 041)631-9146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목사 **김복래**

꿈과희망교회

예배안내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시 30분

경기도 광명시 영우로 36(구:소화2동 950-15)
H.P 010-9852-392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명숙** 목사

삼성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낮예배: 주일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7:00
매일저녁기도회: 오후 8:00

경기도 안성시 구례골길 213-8 전화: 010-4087-3468

심만교회 후원 및 백만성도 대성회를 위한
예수사랑성령대성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권능!
주간 :예수사랑후원회



조강수 목사

매주(화) 오후 2시
사무실: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63(센트럴씨티뷰 103호)
예배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9(연지동)136-46)
(한국기독교회관 2층, 02)763-9746)

준비위원장: 이 규 목사(010-2925-9146)
사 무 총 장: 이선한 목사(010-8291-8081)
후원계좌: 301-0101-7218-41(농협/영광교회)

광주 WPTS 이전 감사예배 드려

총회장 김현수 목사, 약속된 축복을 기원



▲ 신학교인증서

Westminster Paul Theological Seminary WPTS 총장 허창범 목사는 지난 12월 16일(토)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62번길 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교학술원 강단에서 WPTS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웨신총회 호남노회장 김사라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중요한 목사(WPTS 교수, (사)상담교육발전협의회이사)가 기도를, 유한주 목사(호남노회 부노회장)의 성경 행 1:8절을 봉독하고, 특송(1) WPTS 채플대표, 특송(2) 김재진 목사(색소폰연주(세계미디어선교협의회이사) 등이 진행되었다.

웨신총회 총회장 김현수 목사(꿈너머꿈교회 담임)는 “약속된 축복”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현수 총회장은 역행하고 되보하는 이 시대에 광주 WPTS 바울신학교학술원(총장 허창범 목사)의 교사를 확충하고 이전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WPTS 허 총장과 관계자와 신학생들을 축하했다.

WPTS, 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교학술원의 발전은 성령이 함께하시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총장과 교수들이 뜻을 같이하는 데서 얻어진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회장은 신학교와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강조했다. 김 총회장은 롬 15:13 ‘소

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동하게 하고, 소망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다.

총회장 김현수 목사의 은혜로운 메시지는 cjtn tv(<http://jtn.tv.kr>)에서 진행된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볼 수 있다.



▲ 설교 총회장 김현수 목사

이어 최혜순 목사(호남노회 서기)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이어 호남노회장 김사라 목사의 사회로 제2부 신학교인증서 수여 및 이사장 치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장 김현수 목사는 총장 허창범 목사에게 신학교인증서를 수여하고, WPTS이사장 박정균 목사(웨신증경부총회장)가 치사했다. 이어 WPTS교수대표인사에 마순덕 목사(WPTS 교학처장), WPTS신학생 대표의 축가가 이어졌다. 이어진 동창회 대표인사에 고주영 목사(WPTS졸업생 대표, 호남노회 부노회장), 신학교를 위한 기도예 고경자 목사(WPTS이

사, 명성교회 담임)가 나눴다.

제3부 격려사 및 축사 추가, 축도 순으로 사회: 임예성 목사(웨신총회 증경부총회장)의 진행되었으며 격려사(1)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대표, 웨신총회 증경부총회장), 격려사(2) 김복래 목사(웨신총회 총무)가 격려사를, 이관형 총장(호남유권자연합상임회장/전국지도자연수원총장) 축사를, 송윤희 회장(대체의학박사/(주)신안꾸지 뽕 및 농업법인가을대표)와 에덴교회 안행주 목사가 추가했다.

광고에 허재준 목사(WPTS Chapel 담당), 축도: WPTS 총장 허창범 목사, 내외 귀빈들을 초청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호남노회장 김사라 목사의 진행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회의록서기 양연석 목사가 기도를, 부회록서기 김삼순 목사(샘물교회)는 장 28:10~15절을 봉독하고, 에덴교회 성도들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며, WPTS이사장 박정균 목사(웨신 증경총회장/대전변신교회)는 “사막다리의 은총”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박정균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인데, 사냥 다녔을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았는가 하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되도록까지 빼앗았다.’ 그 결과 야곱의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쳐 갔다. 야곱이 뱀열에 이르렀을 때 피곤하여 지치고 해는 져고,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긴 사막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사막다리 위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선포하게 되었다.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고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곳에 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여

적인 훈련, 파위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증경총회장의 은혜로운 자세한 설교는 분방송 [cpj tv](http://cpj.kr)(<http://cpj.kr>)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제2부 목사임직은 호남노회장 김사라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어, 서기 최혜순 목사가 임직자 개개인의 약력을 소개하고, 노회장 김사라 목사는 임직자들을 기립하게 하고 오른손을 들어 서약식을 문답했다. 임직자 안수기도에 안수위원 허창범, 정기남, 마순덕, 임예성, 양은실, 고정옥, 김사라, 김복래, 최준수 목사가 말았다.

제3부 권면 축사 축도 순으로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발행인), 마순덕 목사(웨신증경부총회장), 임예성 목사(웨신증경부총회장) 등이 권면하고, 김복래 목사(웨신총회총무), 최정수 목사(웨신총회서기), 김기배 목사(CTS직전사장) 등이 축사했다.

안행주 목사, 에덴교회 설립예배 드려



▲ 설교 박정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호남노회 소속 안행주 목사는 지난 12월 16일(토)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619-26, 3층에 에덴교회(개척자 안행주 목사)를 설립하고 총회장 김현수 목사, 총무 김복래 목사, WPTS 총장 허창범 목사, 내외 귀빈들을 초청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호남노회장 김사라 목사의 진행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회의록서기 양연석 목사가 기도를, 부회록서기 김삼순 목사(샘물교회)는 장 28:10~15절을 봉독하고, 에덴교회 성도들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며, WPTS이사장 박정균 목사(웨신 증경총회장/대전변신교회)는 “사막다리의 은총”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박정균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인데, 사냥 다녔을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았는가 하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되도록까지 빼앗았다.’ 그 결과 야곱의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쳐 갔다. 야곱이 뱀열에 이르렀을 때 피곤하여 지치고 해는 져고,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긴 사막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사막다리 위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선포하게 되었다.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고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곳에 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여



▲ 안행주 목사

기서 은총의 사막다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은총의 사막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박 목사는 사막다리 은총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원의 사막다리, 축복의 사막다리, 은총의 사막다리가 세워져야 할 것을 기원했다. 그리고 명시할 것은 구원도, 축복도, 응답도, 부흥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박정균 목사는 특별히 안행주 목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야곱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그러면서 에덴의 이름처럼 에덴교회가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에덴동산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복했다.

2. 사막다리는 물질적 은총을 의미한다고 했다.

설립예배를 드리고 있는 에덴교회가 사막다리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복된 에덴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기원했다.

3. 야곱은 사막다리의 은총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히 11: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은 세우신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는데도 신앙과 인격과 헌신과 삶이 야곱의 겹질을 벗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오히려 점점 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 있다고 했다.

안행주 목사는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모습과 인격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다면, 항상 웃는 모습에 온유와 겸손, 숨어 있는 듯한 묵묵한 헌신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끝으로 나다니엘 같은 안행주 목사, 에덴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사막다리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로 마쳤다.

이는 요약한 설교이며 ‘사막다리의 은총’은 본 방송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은혜로운 이 설교는 꼭 들어야 한다. 이날 녹화된 영상은 예배의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CJTN TV (<http://jtn.tv.kr>)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봉헌찬양을 부른 후 정정숙 목사가 봉헌기도를 드렸으며, 호남노회장 김사라 목사는 에덴교회가 설립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고, 격려사에 총회장 김현수 목사(꿈너머꿈교회), WPTS총장 허창범 목사(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교학술원 총장), 축사에 증경부총회장 마순덕 목사(일로 사랑하는교회), 증경부총회장(임예성 목사(벨엘교회), 증경노회장 고정옥 목사(우리들교회), 등이 격려사 및 축사를 맡았으며, 에덴교회 안행주 목사의 인사 및 광고가 있었으며, 설립자 가족을 대표하여 김용태님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웨신증경부총회장)의 축도를 끝으로 에덴교회 설립감사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마쳤다.

2024년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담임 소진우

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Tel. 02)934-1232

대 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저녁예배	2부. 오전 11:00
유치부	오후 7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전 11시
중고등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2:30
금요철야예배	수요일 오후 8시
토요철야예배	매일 오후 10시
심야기도회	토요일 오후 10시
	매일 오후 10시 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24년 신년메시지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고, 섬김을 통하여 섬김받는 자리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2024년 새로운 소망의 한해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나아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할 주제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20:26-27)’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좌, 우편에 앉는 자리보다, 섬기되 끝까지 섬기며 자신의 생명까지

섬지기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곧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 람을 리더로 세울 것인가라는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출발점은 ‘교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교만하지 않고, 나의 삶은 겸손의 삶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

을 때 어두움을 알게 되는 것처럼, 악은 선의 기준에서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삶을 볼 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볼 때, 교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것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혹 힘으로 으뜸 되는 자리를 쟁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울뿐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높음은,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고, 섬김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새 소망의 2024년, 겸손의 분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짐과 섬김, 겸손의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라며, 그러한 삶으로 한 해의 끝에는 높은 이름을 얻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24년 신년메시지



대표회장
천 환 목사

한 새해맞이를 기원합니다.

2023년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나타났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로 등장한 비대면(언택트)이 일상화

되었으며,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이 가속화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는 교회 선교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쳐 온라인을 활용한 여러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도들이 교회의 모임과 선교의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되는 한편 기독교인의 약 20%가 지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새로운 신앙형태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발휘되는 영광은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국교회를

통해 흘러 넘쳐야 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롬 1:17)라는 말씀대로 한국 장로교회가 물질주의, 세속화, 교권주의를 물리치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거룩하고 행복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며 성경 읽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청탁받는 한국 장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새해 한자게 출발하시길 응원합니다.

2023 대한민국 환경ESG공헌대상 시상식

세계산소의 날 기념 및 2050 탄소중립 캠페인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에서는 요즘 기후환경이 너무나 급변하는 가운데 나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전 국민이 나의 나무, 가족 나무, 지구 나무 심기를 권장하면서 한사람이 평생 지구에 128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지구에 빛이 없다는 말을 하며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 하라고 하였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에선 2022년부터 몽골에 나무 1억 그루를 심기로 하고 몽골 정부로부터 1억 평의 땅에 1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2023년 올해부터 1차로 3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올해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환경감시운동본부에서 주관한 필리핀 파북 팔라마요목장, Province of Kalinga주 최 Eco-in Tree Relay(एको-인 나무심기 릴레이) 출범식에 앞서 환감본 이사관 총재와 도선제 중앙회장 일행이 직접 산에 올라가 묘목을 심었고, 20년간 빈민촌선교를 해온 필리핀 선교사로서 아픈 몸을 사리지 않고 헌장 및 행사 동시통역을 맡았고, 행사취재와 오랜 기간 환감본 홍보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어 글로벌공헌부문 ESG환경대상에 이경철선교사가 수상하게 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환경본 이사관 총재와 도선제 중앙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드리며, 모든 분의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 지구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자고 하였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저스타임즈 이경철 기자 (catch0091@gmail.com)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이하 환감본)는 세계산소의 날을 맞이하여 19일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세계산소의 날 기념행사 및 대한민국 환경ESG공헌대상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지구온난화 대응의 목적으로 2018년 12월 15일 “세계산소의 날”을 제정하였고, 환감본은 대한민국환경ESG공헌대상을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한 단체 기업 개인 등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ESG 경영을 유도하고 고취해왔으며 올해로 6회를 맞이하였다.

이번 행사는 세계산소의 날(12월 15일) 기념 및 2050 탄소 중립 캠페인의 목적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서 환감본의 주최 및 환감본 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많은 귀빈과 환경 및 일반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의 MC는 김호가 말마 환경가수 황충재의 노래를 시작으로 정국헌 조직위원장의 세계산소의 날 기념식 및 환경공헌대상 개회선언과 양승조(전 충남도지사) 대화장의 대화사, 환감본의 이사관 총재와 도선제 중앙회장의 인사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축하 메시지, 진선미 국회의원의 축사와 지성호 국회의원의 환영사 메시지가 있었다.

2부 대한민국 환경ESG공헌대상 시상식을 위해 축하 공연으로 지은숙 가수과 최영철 가수 등이 멋진 무대를 선보였고, 노순규 심사위원의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 및 선정기준 발표가 있었으며 수상자로는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인천란수피(주)의 정기업대표가 산림청장상은 홍성 솔바람테마파크의 채희성대표와 (주)무송엘티씨 이홍석 대표가 받았으며, 많은 수상자와 참석자들은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며 행사를 즐겼다.

축, 지저스타임즈 창간 제19주년기념 감사예배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한 ‘신문방송’



창간 제19년을 맞이한 지저스타임즈(발행인 정기남 목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 경인로 346 소재 남현교회 2층 소 예배당에서 전국 각 지사장과 총재와 이사장, 사장 다수의 이사가 자리를 같이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

이날 19주년 감사예배는 이선한 목사(인천주요영광교회 담임)의 인도로 시작하여 이사장 박중서 목사(침례교단 원로)가 환영사와 부사장 조영만 목사(인천시온교회)의 대표 기도를 드렸으며, 인도자 이선한 목사가 성경봉독(마 25:14-16)한 후 꾸미오리(삼임이사 김창국 목사) 위십 찬양으로 축하했으며, 이어 남현교회 원로 이춘복 목사(본지

지문)는 “작은 목회”라는 제하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춘복 목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남현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하고 “지저스타임즈가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축복을 기원했다.

연이어 명예총재 김석준 목사(합동연합신학신대원 총장)와 한국기독교언론부흥사협의회 총재 허창범 목사가 각각 격려사,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가 축사,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담임)의 인사가 있는 후 발행인 정기남 목사의 인사 및 광고했다.

계속해서 특별기도의 시간은 △ 지저스타임즈, TV, JTN CPJ TV 후원과 연부 협을 위하여(총괄이사 송영윤 목사), △

국내 외 MOU 체결한 교단과 해외 방송사들을 위해(부사장 전아 목사), △ 이사 여러분의 건강과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부이사장 임예성), △ 국가의 위기 극복과 복음화를 민족화를 위하여(보도국 차준한 차장), △ 남현교회와 원로 이춘복 목사, 담임 배영배 목사를 위하여 (삼임이사 이선한 목사)가 각각 뜨겁게 특별기도회를 가진 후 고문 이 규목사의 축도로 지저스타임즈 창사 19주년 감사예배를 마쳤다.

이날 이사장 박중서 목사는 차준한 목사를 보도국장 차장으로 사임하고, 웨신 총회 임원이며 광주 푸른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사라 목사를 본 신문방송 부사장으로 위촉했다. 지저스타임즈 cjntv cpj tv cbn knock tv 등 신문방송은 매년 2개월마다 전국 지사를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갖고 있다. 본 신문방송 발행인 정기남 목사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두 무릎을 꿇고 전국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구독자들과 이사진들을 위하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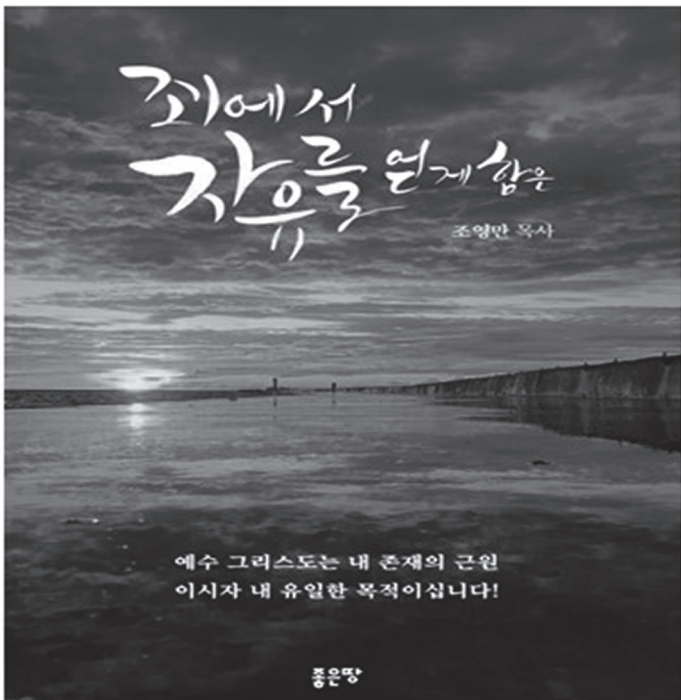
● 참고 / 창간 제19년을 맞아 진행된 설교와 격려사 축사 축도 등은 인터넷 2개 방송에서 동시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1. (cjntv) http://jntv.kr 2. (cpjtv) http://cpj.kr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경인백석신학교 교수
지저스타임즈 부사장
현)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 시청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 메트로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도목사
전) 인천 동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국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전공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인하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 전공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10회

저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나뭇 출판사)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강해 상』 (나뭇)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강해 하』 (좋은땅)
『자유하리라』 (좋은땅 출판사)
『거듭남은 성령세례가 아닙니다』 (청송 출판사)
『전인구원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나뭇 출판사)



*** 책 주문 방법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연락처 : 010-5355-2584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예금주 : 시온교회 658101-01-715840 국민은행
책가격 : 15,000원

다음 카페 :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http://cafe.daum.net/choym.com
유튜브 : 조영만

목차

1. 성결을 이루려면
2. 죄에서 벗어나려면
3. 기쁜 소식(1) -죄의 쓴 뿌리와 기(氣) 속에 있는 죄
4. 기쁜 소식(2) - 원죄
5. 기쁜 소식(3) -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6. 속사람(새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
7.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8. 겉사람(옛사람) 끊겨 죽이는 비결
9. 죄를 짓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제 끝
10. 선과 의와 진리 가운데 못사는 것 이제 끝
11. 죄로 인한 죄절과 실패와 괴로움 이제 끝
12. 독립군과 해방군
13. 세상을 이긴 이긴 - 물과 피와 성령
14.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남기신 이유
15. 장대위에 단 놋뿔을 바라보라
16.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죄절을 하라하신 이유
17. 이기는 생명은 오직 주 예수님이다
18.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는?
19. 환난과 시험을 하라하시는 이유
20.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21. 애굽(세상)에서 광야(육신)로
22. 광야(육신)에서 가나안(성령)으로
23. 말뿐인 예수 그리스도
24.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25. 두 번 죽어야 성결의 은사
26. 죽이는 사역과 살리는 사역
27. 죽은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8. 산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9. 목회서신(000 목사님께)
30.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31. 누가 주님을 의지할까? - 밀짚한 다리에 켜 목발?
32.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이다(1)
33.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이다(2)
34.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이다(2-1)
35.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이다(3)
36.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이다(4)
37. 작은 말뚝에 매여 있는 불쌍한 코끼리

38. 흉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1)
39. 흉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2)
40. 죄 버리는 것이 어려워야 할까?
41. 마음(혼)에 있는 비진리 쉽게 버리는 비법(1)
42. 마음(혼)에 있는 비진리 쉽게 버리는 비법(2)
43.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1)
44.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2)
45.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46.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47. 골게! 마음의 경작 비결
48. 안식 그 이후
49. 죄(Sins)사람과 죄(Sin)에서의 해방
50. 목회서신(000 성도님에게)
51.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의미는?
52. 모세가 사건으로 일컬을 가린 이유는?
53. 영의 사람이 되려면?
54.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열심
55.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56.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57.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십자 마세요!
58. 계집종과 그 아들을 찾아내라!
59.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1)
60.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2)
61.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62. 에베레와 나비(죄 먹는 신앙과 밥 먹는 신앙)
63. 원수마귀의 거짓말
64. 영적 생활의 기본 원리
65.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6. 믿음의 분량에 따른 믿음의 선한 싸움은?
67.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68. 첫 열매로 들림 받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69.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70. 주제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하실 그 일은?
71. 일천 척씩 척량하시는 주님
72. 마지막 때 지어야 하는 상중하 삼층 방주는?
73. 절에서 낳은 자식이란?
74.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려면?
75.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축 한국기독교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장 로 회

2024 謹賀新年

주익예배 / 홍성성전 - 내포성전 - 예배시간 - 동약함

충남 홍성을 흥복읍 자경로51(Tel : 041-631-9146)
교회카페 <http://cafe.daum.net/ssaxp>

홍성성전 / 충남 홍성군 홍성을 옥암리 952번지
Tel : 041-634-0441

담임목사 오종석

[illegible]

축 대한예수교 장로회 엘림교회

표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12:3)

“2024. 근하신년”



담임: 왕 대석 목사
Wang Dae Seok Pastor
E-mail : k1ng-415@hanail.net

엘림의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AM 11:00 본당
주일 2부 예배	PM 2:00 본당
수요예배	PM 8:00 본당
금요오찬예배	PM 8:00 본당
새벽 예배	AM 5:00 본당

교육부(주일)

태영아 예배	AM 9:00 302호
유치부 예배	AM 9:00 201호
유초등부 예배	AM 9:00 본당
중고등부 예배	AM 9:00 본당
청년부예배	PM 8:00 본당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70번지

1270, Kwonsun-dong, Kwonsun-gu, Suwon-ssi,
Gyeonggi-do, 441-836 Korea

교 회 : (031) 224-8475

목사관 : (070) 8269-7809

F A X : (031) 226-5894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산 임마누엘교회

2024년 표어: 4가지 열매 있는 교회 " 이방인. 치유. 후대. 시니어 "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2부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3부 오후 2: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 새벽예배 오전 5:30



담임 강익수 목사
본업론사 부이사장

경기도 아산시 득산로41번길 49~16 교회 : (041) 546-4325) 010) 3759-9192
 2370민파티원센터(다민족센터), 237사잇스쿨(유치부초등대안학교) 충남 아산시 서부 남로866 2층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 라이프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칼럼리스트

제목: 주께서 하십니다 1.
성경: 출 14:10~14 찬송 268장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했으면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뒤에 따라오는 대적을 보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봅시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문제를 만나면 심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은 후에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 냅니다. 우리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절대절명의 사건 속에 누가 개입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목: 주께서 하십니다 2.
성경: 출 14:10~14 찬송 406장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문제를 만났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모세의 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왜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새해는 원망과 불평 등 부정적인 말은 삼가고 감사만 합시다. 순종자인 나를 통하여 주께서 하십니다. 흥해가 갈리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원망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한 모세 때 문입니다.

제목: 여기까지 인도하심
성경: 삼하 7:18~21 찬송 310장

오늘 본문은 1~17절에 기록된 나단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읽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6절에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대언합니다. 그 후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삼하 7:18).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중요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제목: 목숨을 거는 신앙
성경: 삼하 23:13~17 찬송 348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걸고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복한 성도님은 목숨 걸고 믿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역사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각오가 있습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숨 거는 신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목숨 거는 신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용사는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다윗이 명한 것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17절에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평평을 따른 용사도 위대하고 다윗도 위대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블레셋이 공격해도 서로 인정하면 승리합니다.

제목: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
성경: 시 119:89-96 찬송 394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결심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약하여 흔들리고 변하기 쉽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마음과는 달리 주의 말씀은 하늘이 그대로 있듯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도 땅이 항상 있듯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때문에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

리도 주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단다
성경: 시 119:97~104 찬송 204장

최근에 놀라우신 주의 말씀의 맛을 경험해보셨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119:105).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내 입에서 꿀보다 달다고 했을까요? 시인은 주의 계명을 함께 했기 때문에 원수의 유혹을 이기는 지혜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인생길 가운데 가야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이런 비밀을 계속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목: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빛이니
성경: 시 119:105~112 찬송 285장

본문 105절은 말씀의 능력과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 권세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빛과 같습니다. 시인은 현재 고난이 매우 심한 상황이며 생명의 위기가 항상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악인들이 해하려고 음모를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절한 인생의 흑암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한줄기 빛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인생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과 소망의 등불이 됩니다.

제목: 한 마음으로
성경: 시 119:113~120 찬송 405장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어떤 작심을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법을 다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양편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세상 편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고 합니다. 본문의 시인과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법을 사랑하겠다는 선포가 나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제목: 끝까지 사랑합니다
성경: 시 119:121~128 찬송 620장

본문에서는 주의 법이 폐지될 정도로 극심한 박해가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끝까지 주의 계명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를 깊이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법이 위력을 받고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 때가 바로 주님이 일할 때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시119:126). 우리도 시인의 고백처럼 순금보다 더 주의 계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목마릅니다
성경: 시 119:129~136 찬송 217장

본문에서 시인은 말씀의 능력이 놀라워 감탄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우둔한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계에 빠진 자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기갈을 잠재 못해 얼얼하며 시냇물을 마시듯이, 주님 말씀을 사모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할렷었나이다” (시119:131).

제목: 그래도 즐겁습니다
성경: 시 119:137~144 찬송 438장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시119:141). 시인의 상황은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까지 있는 대단히 곤혹스런 상태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전10:13)

제목: 주님께 가까이
성경: 시 119:145~152 찬송 446장

시인은 주께 부르짖고 울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심을 다하여 울부짖으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

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여기며 원수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는 밤낮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떠나려는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 가까이 계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임재의 자리에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 119:151)

제목: 나를 건지소서
성경: 시 119:153~160 찬송 500장

시인은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한 믿음의 행실을 근거로 주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57절과 같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많았지만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

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악한 자들을 보면서 적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하루 일곱 번씩 찬양하라 **성경: 시 119:161~168 찬송 621장**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시119:162).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칠’이란 숫자는 완전수로 상징됩니다. 시인은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는다는 것은 재물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 이런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의 특징?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영성은 성경에서 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감도 받아 기독교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들의 영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성령의 충만

사도들은 오순절 전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강림하여 그들을 생명의 성령이 내주함 일, 마음에 할례로 성령충만하게 하였습니 다. 성령은 사도들에게 지혜, 능력, 힘을 주 어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에 기여하게 했습니다.

2. 말씀에 대한 헌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데 헌신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할례로 특히 다양한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고하며 많은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3. 종교적 열정과 희생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으로 노력했

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4. 교회의 성장과 확장

사도들은 교회를 설립하고 이끌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은 특히 다양한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5.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사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며, 그것이 죄 사함과 구원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공동체와 형제애

사도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이자 형제자매들의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성경에서 사도들의 행적과 가르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이를 위해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 니다.

■총장 홍한표 목사■

인터넷 최저가 보다 50만원 더 저렴한

A3무한잉크 컬러 복사기

성공 목회를 위한
엡손 완성형 정품 무한
팩스 컬러 복합기

198만원 → 99만원! 반가격에 드립니다.

높은 생산성
유지비를 대폭 낮춘
슈퍼 대용량 잉크

L15160 / L6570은 검정 잉크 127ml와 컬러 70ml의 대용량 잉크가 기본 제공되며, **장당 출력 비용** 대폭 낮춰 유지비 걱정 없이 대량 출력이 가능합니다.

슈퍼 대용량 잉크 **흑백 7,500 장**

기본 제공 잉크 **컬러 6,000 장**

검정 127ml / 컬러 각 70ml

EPSON 완성형 정품 무한
L15160 A3 / L6570 A4

※ 모든 것이 올라도 저희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장로교회용·감리교본부·침례교본부·성경교교회 외 10,000여 교회에서 사용중입니다

A3 컬러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유성(안료) 잉크

(2022년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since 1989 ~ 30년을 한결같이~

-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습니다.
-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7샷트에서 주보기능)
-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가능
-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250만원 → 139만원

특별 할인

소모품비용 90% 절감!

※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전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12.8cm 대경 컬러 터치 패널
- 대용량 용지 급지용 지원
- PC 없이 스캔 작업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로 설정으로 보호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링크 카트리지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타이틀(15만원)옵션

이전에 주문하시는 교회에 한하여 링크 한 세트(B/K, C, M, Y 4개)를 더 드립니다

세계최강!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높은 생산성과 경제성의 컬러주보 복사기

컬러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검정 50,000매, 컬러 20,000매의 대용량 잉크팩이 장착된 세계최강, 세계최초의 유성(안료)잉크를 사용한 획기적인 컬러주보 복사기입니다.

제품 특징

1. 3단 6면주보 출력
2. 4단 8면주보 출력
3. 60cm 배너 출력
4. 주보 양면 연속 출력(카트리지 A4 주보)
5.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
6. 후면 급지대(80매 적재)

인터넷 최저가 대비 **50만원 저렴!**

198만원 → 99만원

경제성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동급 최강의 슈퍼 대용량 링크 카트리지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90%)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비용 소요

생산성

- 128cm의 대경 컬러 터치 패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 검정 50만 매, 컬러 2만 매 대용량 링크팩
- 세계최강, 세계최초의 유성잉크 사용
- 대용량 용지 급지용 지원

효율성

- PC 없이 스캔 작업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로 설정으로 보호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음
- 1989년 창립의 30년 노하우 제공
- 신속, 정확한 A/S로 영주의 원활한 극대

교회와 가정에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싶어 특별한 혜택과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특허상품] LED십자가
2023년도 교회 기념품
선물용, 심방용, 임직용으로 추천

Box(20개) 단위로 구입시 개당 6,000원

LED 반석십자가

LED 무지개십자가 1개당 35,000원

축 2024. 신년하례 임원일동 拜

주제 : “선한 열매의 은혜”(약 3:17)

총 회 장



김현수 목사
꿈너머꿈교회

부총회장	부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의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김안식 목사 열안향목가교회	이승표 목사 한울타리선교회	이영선 목사 하늘샘교회	최정수 목사 일상교회	정성봉 목사 헤브론드림교회	최이삭 목사 소망교회	심준범 목사 늘푸른교회	허승무 목사 티엘교회	김사라 목사 푸른솔교회	김복래 목사 꿈과희망교회

일시 : 2024년 1월 8일(월) 오전 11시
장소 : 동탄 꿈너머꿈교회(담임 김현수 목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로61번길25
T. (070)7678-3349(대) 총무 010-9852-3927



웨신총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02)835-2606 Fax 835-2608
<http://www.ws333.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비전

- ▶ 믿음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 ▶ 사명실천으로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 ▶ 성령충만으로 사명감당하는 교회
- ▶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원로목사
허창범
(Ph.D., Th.D.)



위임목사
김사라
(Th. D.)

(전) 예장 웨신총회장
(현) (사) 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
(현) 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교 학務원장
(현) 한국기독교언론진흥협회 총재
(현) 푸른솔교회 원로목사
(전)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 전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교(M.Div)
- 美 Cumberland University 신학박사
- (현) 푸른솔교회 위임목사, 호남노회장
- (현) 예장 웨신총회 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1번안길 47(영무에다움 2차 후문 앞, 수완중 옆)
TEL: (062) 953-4620 H.P : 8665-5522

주의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 부흥하는

호남노회

노회장 김사라 목사



호남노회는 웨신총회를 사랑하며 화합하는 노회로서 두 분의 총회장(증경총회장 허창범 목사, 박정균 목사)을 배출한 명문노회이며 노회원 모두가 사랑과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아름답고 행복한 노회입니다.

성경적 장례, 부활식 천신학 시리즈



일반저서(수필 & 시집)

투헤븐선교회 대표 | 예장웨신 총회장
꿈너머꿈교회 담임 김현수 목사
(010-7667-4719)

투헤븐선교회 직영 투헤븐상조 : 기독교 천국환송예식 전문
www.투헤븐.com 네이버·구글·'투헤븐상조' 검색 유튜브 투헤븐TV
사전가입, 예식행사 상담 및 문의 : 투헤븐선교회 최현정 국장 1800-7039